

2019 년 가을 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그리스도인 생활

메시지 1
그리스도인 생활을 앞

성경 말씀: 빌 1:20-21 상, 요 14:10-20, 15:4, 롬 12:4-5, 갈 2:20

- I. 그리스도인 생활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생활이다—빌 1:20-21 상.**
- A. 그리스도는 신성한 삼일성의 중심이시다—고후 13:14.
 - 1. 신성한 삼일성의 중심으로서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표현하시고 그 영으로서 실재화되신다—요 14:10-20.
 - 2. 아들은 아버지의 체현이며 표현이시고(7 절-11 절), 그 영은 아들의 실재이고 실재화이시다(17 절-20 절).
 - 3. 복음서들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께서 한 인격인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볼 수 있다. 우리는 그분을 살고 확대해야 한다—빌 1:20-21 상.
 - B. 그리스도는 생명, 즉 유일한 생명이시다. 그 외의 다른 생명은 참된 생명이 아니다—요 14:6 상.
 - C.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시다. 이 생명은 시간과 질과 온전함과 완전함에 있어서 영원하며 파괴되지 않고 썩지 않는 생명이다—요 3:36, 히 7:16 하, 딤후 1:10 하.
 - D.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그분의 믿는이들에게 생명이시다—요 11:25, 골 3:4 하.
 - E.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믿는 이들 안에 계신다. 그분은 믿는 이들 안에 사심으로써 그들이 그분을 살게 하신다—롬 8:2 상, 9 하, 고전 15:45 하, 고후 3:17, 요 14:19, 갈 2:20.
- II. 그리스도인 생활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부분으로서 그리스도의 지방 표현이 되기 위해, 그들의 지방에서 지방 교회로서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생활이다—롬 12:4-5, 고전 12:12-13, 27.**
- A. 신성한 삼일성의 중심이시고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사는 믿는이들은 그분의 살아있는 지체들로서 그분의 유기적인 몸을 조성한다—롬 12:4-5.
 - B. 그리스도인 생활은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생활, 즉 교회 생활이어야 한다—고전 1:2.
 - C.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유기적인 몸의 부분이 되기 위해, 그분의 인간 미덕들 안에서 표현되는 신성한 속성을 지니신 그리스도 자신이신 생명을 산다—고전 12:27, 롬 12:5.
- III. 그리스도인 생활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하나의 생활이다—요 15:4, 갈 2:19-20.**
- A. 하나님은 신성한 생명과 인간 생명이 연결되어 한 생명이 되기를 갈망하신다. 이 하나는 생명 안에서의 연결이다—고전 6:17.
 - B. 그리스도인 생활은 교환된 생명, 즉 더 낮은 생명을 더 높은 생명으로 교환한 생명이 아니라, 접붙혀진 생명, 즉 인간 생명을 신성한 생명 안으로 접붙힌 생명이며, 신성한 생명과 인간 생명의 연합이다—롬 11:24.
 - 1. 접붙일 때, 두 비슷한 생명이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함께 자란다. 영적 접붙힘의 과정에서 두 생명, 즉 신성한 생명과 인간 생명이 접붙혀져 하나가 된다—창 1:26, 2:7.

2.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혀질 수 있도록,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기 위해 육체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셨다—요 1:14, 마 1:1, 고전 15:45 하.
3. 주 예수님의 귀함이 우리 안으로 주입되었을 때, 우리는 그분을 감상하기 시작했고 그분 안으로 접붙혀 졌다.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었고,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 되었다—고전 6:17.
 - a. 그리스도 안으로 믿고 그분 안으로 침례 받음으로써 우리는 그분 안으로 접붙혀 졌다—요 3:15, 갈 3:27.
 - b.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씨이시며, 또한 좋은 땅의 축복으로서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분 안으로 접붙혀 졌다—갈 3:16, 14.
4. 거듭난 이들로서, 우리는 접붙혀진 생명을 살아야 한다—요 15:4.
 - a.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혀진 후,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—갈 2:20.
 - b.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의해 또는 우리의 타고난 존재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, 우리의 거듭난 영, 즉 그리스도와 접붙혀진 영에 의해 살아야 한다—고전 6:17.
5. 접붙혀진 생명 안에서 신성한 생명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배출하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분을 부활 시키는 일을 한다—살전 5:23, 롬 8:10, 6, 11.
6. 이 접붙혀짐을 통해 우리는 그분 안에서 확대된, 우주적이며,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, 즉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,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된다—고전 6:17, 요 15:4, 14:20, 계 21:2.

IV. 갈라디아서 2 장 20 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경륜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본다—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,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.

- A.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, 더 이상 우리가 살아서는 안된다. 그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셔야 한다.
 1. 하나님의 경륜은 ‘내’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, 그분의 부활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.
 2.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의도는 우리를 새로운 인격, 즉 새 ‘나’로 만들기 위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주입되시는 것이다.
- B. 거듭난 사람들로서, 우리는 옛 ‘나’와 새 ‘나’ 모두를 갖고 있다. 옛 ‘나’는 끝났지만 새 ‘나’가 산다.
 1. 종결된 ‘나’는 신성이 없는 ‘나’이다.
 2. 여전히 사는 ‘나’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더해진 ‘나’이다.
 3. 옛 ‘나’는 그 안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없는 반면, 새 ‘나’는 신성한 생명을 받았다.
 4.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더해지심으로 옛 ‘나’는 새 ‘나’가 되었다.
 5. 새 ‘나’는 옛 ‘나’가 부활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해지셨을 때 존재하게 된 ‘나’이다.
- C. 우리와 그리스도는 두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갖고 한 생활을 산다.
 1. 우리는 그분에 의해 살고, 그분은 우리 안에서 산다—요 6:57.
 2. 우리가 살지 않을 때 그분은 사시지 않고, 그분이 사시지 않을 때 우리는 살 수 없다.
 3.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시고 살 수 있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사신다—요 14:19.
- D. 천연적인 인격인 ‘나’는 자신이 온전케 되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지만(빌 3:6),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을 통해 표현되기를 원하신다.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은 ‘내’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다.